

## 과테말라 선교보고 (제 59 호)

8 월 22 일, 2022 년

### 8 월이 겨울이라고?

8 월의 푸르른 계절이지만 우기철이라서 거의 매일 장대 비를 쏟아 붓고 지나가고 있어 8 월의 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현지인들은 날씨가 쌀쌀하여 겨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인 옥수수가 비를 맞고 무럭무럭 자라서 원만한 사람의 키 보다 더크게 성장하면서 멀지 않아 통통한 옥수수를 매달게 될것입니다. 농부들은 가을의 추수를 위해 바쁜 일손으로 가족들의 일년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정부는 비교적 안정되고 환율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팬데믹 코비도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있어 모든 규제를 풀었으나 사람 많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건강하게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6 월과 7 월에 시카고에 들어가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모두가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고 현지에 돌아와 잘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쉬임 없는 기도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부활주일 새벽 촛불예배

지난 4 월 부활 주일 새벽에 전 교인 촛불 예배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의 장차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린이와 교우들 90 여명 참가하여 “ 사셨네.. 사셨네.., 살아계신주..”를 목청 높혀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 과테말라 개신교는 부활 주일 아침에 새벽에 예배하는 교회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인들이 부활주일 새벽에 예배한다고 하니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두 기쁜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참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배후 전 교인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 신학교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세떼까(SETECA) 신학교는 과테말라 시티(수도)에 소재한 세떼까 신학교의 분교로서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 신학교 입니다. 이 지역에서 본교 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본교로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사와 강의는 본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시고 본 교회에서는 그들의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25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들을 보면 과테말라 장래 교회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신학교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개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22 년도 세례(침례)식 실시

제 1 교회 세례(침례) 식이 8 월 7 일 주일 전 교인이 세례 탕이 준비된 더운곳에 가서 은혜롭게 실시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교파 상관없이 모든교회가 침례를 실시 합니다. 또한 이곳은 항상 서늘하여 차거운 침례탕에서 침례를 할 수 없어서 바닷가 쪽으로 약 2 시간 내려가서 침례를 실시 합니다. 금년에는 4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겠다고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린후에 침례를 실시하고 각가정에서 가지고 온 점심 식사를 삼삼오오 모여 식사후 수영장에서 놀이터에서 축구장에서 모두 즐기며 하루를 야외 예배처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 1 교회 개척 2 년후 부터 침례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약 150 여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난 2 년간은 팬데믹으로 교회의 모임이 없어 세례를 실시하지 못했음)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 받은 성도로서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2 교회는 9 월 첫주에 9 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제 1 교회 창립 15 주년 감사예배

2007 년에 제 1 교회를 개척하여 금년이 15 주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난 15 년간 지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1 교회 와 제 2 교회가 함께 합동으로 은혜로운 시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위의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교회에 들어오게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이곳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중 출타중인 선교사님들을 외에는 함께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 하시는 김선근 목사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 주셔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Antony Sac 전도사님 부부에게 목사 안수를 실시 했습니다. 전 교인들의 우렁찬 박수 속에 교회가 처음으로 목사 부부를 탄생하게 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 였습니다. 또한 이곳 경찰서 서장님과 몇 분이 참석하여 축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약 3 시간의 예배후에 참석자 모두가 점심을 함께 나누고 기념품도 나누고 하여 하루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은혜로운 주일 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여러 분들의 쉬임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진행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들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자녀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충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득,경희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현지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 2, 세우신 두 교회의 목회자들과 영적으로 더욱 성장 할 수있도록
- 3, 과테말라 개신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부활주일 새벽 촛불예배



촛불 예배후 아침식사



어머니날 엄마경찰초청예배



신학생들이 점심으로 피자를받고즐거움



침례 받는 모습



세례식 현장에서 주일 예배



창립 15 주년 감사예배



창립예배에 참석한 한인선교사와현지목사



Tony 전도사님 목사안수